

한국농어촌공사 옥천영동지사, 영동군에 사랑의 성금 100만원 기탁

[임종석]



성금 100만원 기탁 후 기념촬영 모습.

한국농어촌공사 옥천영동지사(지사장 김상우)가 9일 영동군청을 방문해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기를 전하고자 사랑의 성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이날 함께 고향사랑기부금 100만원도 추가로 기탁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옥천영동지사는 농어촌 지역의 생활기반 조성, 농업용수 관리, 지역개발 사업 등을 수행하며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공공기관으로, 평소에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 주민과의 소통과 나눔을 이어왔다.

이번 성금 기탁 역시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연말연시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이다.

김상우 지사장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관으로서 작은 정성이지만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따뜻함이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참여했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지역을 생각하며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신 데 깊이 감사드린다"며 "기탁된 성금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중앙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임종석 기자